

Sumitomo, SIM 파산 막아냈다!

염소가격 분쟁 항소에서 이겨 ... Durability는 파트너십 중단 원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Sumitomo Chemical의 항소를 인정해 VCM(Vinyl Chloride Monomer) 생산기업인 PT SIM(Satomo Indovyl Monomer)의 파산을 선언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

SIM의 지분을 각각 75% 및 25% 소유하고 있는 PT SAU(Sulfindo Adi Usaha) 및 Sumitomo 간의 분쟁으로, SAU는 Durability Enterprises가 소유하고 있는 Salim의 전자 자회사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신청했다.

Durability와 Sumitomo의 논쟁은 기존 Salim과 Sumitomo 사이의 합작투자 합의조항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양사의 합의조항에 따르면, SAU가 SIM에 공급하는 염소 가격은 SAU의 CA(Chlor-Alkali) 플랜트 건설에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Durability는 2002년 Salim의 SAU 지분을 인수했을 시 이를 탐탁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Durability는 중재를 요구하는 대신 SIM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으며 SAU 또한 SIM에 염소 공급을 중단해 SIM의 EDC(Ethylene Dichloride) 및 VCM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Durability는 SIM에 공급하는 염소 가격을 Sumitomo와 합의된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뿐만 아니라 SIM에서 Sumitomo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umitomo에 따르면, SAU는 2003년 5월 남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합작계약상의 염소 가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제출했으나 Sumitomo는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2>